

No.8 - 슈겐도의 시조, 엔노 교자

슈겐도는 고대 일본의 자연 숭배 사상에 불교와 도교가 융합된 종교로, 수행을 쌓는 산악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. 엔노 교자라는 인물이 바로 이 슈겐도의 시조로 여겨집니다. 긴푸센지 절을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엔노 교자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

전승에 따르면 엔노 교자는 나라현에 있는 현재의 고세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. 엔노 교자는 어린 시절부터 집 주변에 있는 높은 산들을 동경하여 수행을 거듭한 끝에 유명한 주술사가 되었습니다. 후일 그는 수행에 매진하고 널리 일본 전역을 여행하며 이후의 삶을 살았습니다. 그 과정에서 그는 요시노와 오미네를 포함한 여러 영봉을 오르고 슈겐도를 창시했습니다.

엔노 교자는 엄격하고 치열한 수행을 통해 요괴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한 초자연적인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. 엔노 교자상은 보통 양옆에 젠키(前鬼)와 고키(後鬼)라는 이름의 두 요괴를 거느리고 있는데, 이 요괴들은 엔노 교자에게 붙잡혔다가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은 후, 엔노 교자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.

일반적으로 수행자 또는 야마부시(山伏)라고 불리는 슈겐도의 수도자들은 산으로 들어가 수행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. 긴 거리를 걷고 산을 오르며 험준한 바위 밭을 오르내리는 등의 수행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수도자들은 이러한 수행을 통해 슈겐도의 시조가 체득한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려 했습니다.